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休息處

11월4일 금현3리 경로당 준공식

포천시 가산면 금현3리 경로당 준공식이 11월4일 오전 11시 금현리 60-2번지에서 박운국 포천시시장과 리장, 노인회장, 지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경로당 준공식은 이근선 시장의 경과보고 홍성국 노인회장의 인사말과 박운국 포천시시장, 정종근 포천시의회의원, 이금중 포천시노인회장의 축사와 준공식 테이프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금중 노인회장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처를 마련해주시는 박운국 시장님, 이강립 의장님, 이봉규 면장님 그 밖의 관계자 여러분, 애쓰신 보람으로 경로당이 설립되어 감사하다"며 "우리 노인회원들은 받기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젊은이들에게 본받는 웃어른으로써 노인회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는 노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준공식을 가진 금현3리 경로당은 130평 부지에 건축면적 47.8평방 미터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공동거실, 주방, 식당, 유아실 등이 마련됐으며 1억4천만 원의 시예산이 투입됐다.

금현3리는 95세대 225명이 살고 있으며 노인회원은 남자10명, 여자 11명 등 21명이며 노인회장 홍성국, 이장 이근선, 부녀회장 김부순, 새마을 지도자 박운국 회장 등이 봉사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가산면 금현3리 경로당 준공식이 11월4일 오전 11시 금현리 60-2번지에서 박운국 포천시시장과 리장, 노인회장, 지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여성단체회원 사회참여 活性化 도모

2007 포천시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영자)는 여성단체회원의 단합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7 포천시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27일 포천시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여성단체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체육행사, 화합의 장,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으며 체육행사는 디스코 릴레이, 달리기 특급열차, 지네발 릴레이, 무지개 릴레이, 파이프라인, 코믹계주등을 실시했다.

화합의 장은 팀 파워,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으며 노래자랑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천시 여성단체 회원 500여명



은 포천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보다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은 물론 포천시 발전을 위해 서로가 단합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선후배간 우정과 화합의 場

10월29일 영북중고 총동문회 축제 개최

영북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임영선)는 10월29일 11시 영북중고에서 총동문회 축제를 개최하고 선후배간 우정과 화합 및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영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회 회비 500만원을 적립하고 인터넷 카페 회원이 13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 친목과 학교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동규 은사님과 매월 1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온 청수회에 대한 총동문회의 감사패 전달식, 경과보고, 신상호 학교장 인사, 박동규 은사의 축사,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동규 은사는 "71살의 인생 중 반생인 36년을 운전에서 살았고 교직 40년 중 20년을 재임하다보니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새로운 감회를 받는다. 36년의 역사를 가지고 5천8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영북중고는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니므로 모교발전과 후배 성장을 돕기 위하여 동문회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행사가 겹쳐 예년보다 적은 5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선후배간 친목도모,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영중면민 하나 되던 날

제4회 영중면민의 날 한마당 큰잔치 행사

영중면 체육회(회장 강태선)는 10월28일 오전10시 영중면민의 날을 맞이하여 영중중학교에서 체육대회 및 민속 한마당잔치와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다.

마을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체육대회 및 2부 문화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100대 생활용품세트, 우승기, 트로피와 푸짐한 경품 등 총 6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1부 체육대회는 축구, 게이트볼,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쌀 오래틀고 버티기, 1.400m 계주종목에 걸쳐 자웅을 겨뤘다. 양문1·2리, 양문3·4리, 영령, 금주, 거사, 성동리 등 6개팀이 자웅을 겨룬 결과 종합우승 양문1·2리, 2등 거사리, 3등 양문3·4리가 차지했다.

강태선 회장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다함께 동참해서 영중면민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부 문화행사는 포천시립예술단의 한국무용과 민요, 가요 한마당 등 공연이 늦은 밤까지 진행되어 영중면의 단합된 면모를 과시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老人주간보호 프로그램 運營

포천 모현은빛사랑채 開所

재단법인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가 최근 포천시 신읍동 모현의료센터 내에 노인 주간(晝間)보호시설인 모현은빛사랑채를 개소했다.

모현은빛사랑채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낮 동안 보호하는 시설로, 단순한 보호뿐만 아니라 각종 재활서비스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복지사, 지도원, 간호조무사 등 7명의 전문인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선공예, 미술치료, 종이접기, 노래교실, 건강체조, 물리치료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현은빛사랑채는 핵가족화, 맞벌이,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시대에 노인들에게는 정서적 안정



모현은빛사랑채에서 노인들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을,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보다 원활한 경제활동조건과 부양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포천의 축제중



신형석 주부명예기자단

저무는 10월을 바라보며 꽤 분주히 보냈던 시간이었다고 그 시간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시간들이었기에 더욱 뜻깊고 보람이 있다. 포천은 10월에 유난

히 행사가 많다. 중순에 명성산 역사꽃 축제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숲축제, 개성인삼축제 등 10월의 끝자락까지 이어지는 축제는 밤하늘을 화려히 장식하는 폭죽의 불꽃처럼 이 계절을 환하게 수놓는다. 물론 곳곳에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돋보였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지

자유기고

춘천마라톤 完走



이명순 주부명예기자단

10월29일 설레는 마음으로 청성공원 반월아트홀 앞에서 포천마라톤동호회 회원들과 만났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6시20분부터 오기가 시작했다. 인원을 체크하고 선수 15명, 응원 2명은 포천시에서 보내 준 보스에 올라 출발했다.

40km 지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왕 언니 잠깐 쉬어 가지요"하는 강동구 회원의 말이 정말 반갑다. 다리를 벤치 위에 올려놓고 다섯 명이 누워 있으니 지나가는 마라톤 일행이 우리가 부러운 듯 보고 지나간다. (우리는 계속 달리는 그분들이 부러운데...) 우리도 얼른 회복해서 뛰어야 하는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다보니 어느덧 춘천 공설운동장이 보인다. 드디어 49년만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순간이다. 카메라 후레시가 터진다. 기록은 내세울만한 않지만 풀코스를 완주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자랑스럽다. 2만599명이 출발했지만 완주한 사람은 1만3천여명이 그중에 이명순이 포함됐다는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하지 않으리라" 드디어 내 평소 좌우명대로 이루어진 순간이다. 내년 동여마라톤에도 도전해 볼 생각이다.



Essay

이 가을에 나눔의 마음들이....



윤순옥 포천신문편집위원

봄부터 따사로이 가운뎃길을 거둬들이는 수확의 계절이다.

중요로운 틈새처럼 가을밤의 둥근 달이 낮에 본 세상은 더러 어지럽고 추한 것은 덮어버리고 사실에서 벗어난 듯만 듯 그렇게 신비의 은빛으로 품어 안아 늦가을 저녁 밤을 아름답게 비추준다.

달빛에 마음을 빼앗겨 심금을 울리는 시를 후세에 남긴 시인이 끝내는 강물 속의 달의 유혹을 내치지 못하고 강물에 뛰어든 이태백이 놓린 달이 저렇게 높은 곳에서 만민의 가슴에 수를 놓듯 고고히 비치고 있다.

달빛에만 젖어 있다가 친구가 농사지은 걸 혼자 먹을 수 있나며 울랄랄라 쟁겨준 보따리를 풀어 손질해야 한다. 쫓고추 하나에도 친구의 정성이 묻어 있어 맛있게 보인다. 나눔은 두 배의 기쁨으로 온다더니 나는 무엇으로 친구에게 기쁨을 줄까? 우리가 사는 세상 서로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좋은 관계 유지가 오래도록 함께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은 품목과 물량에 따라 가치가 다르긴 하지만 10년 가까이 넉넉지 못한 이웃들에게 적지 않

은 쌀과 금품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나눔의 실천을 하고 있는 남편의 태반함에 이제는 정말 잘했고 고맙다는 말 밖에 없다.

처음 몇 년은 나도 힘든데 꼭 이렇게 해야 하나하고 혼자만의 속 앓이도 했었다. 그러나 아이들까지 아버지 하시는 일에 박수로 응원을 하니 내색도 못하고 함께 해온 세월이다.

차츰 마음이 흡족하며 그들의 맑은 미소로 마음을 전해주시니 나의 행복지수에 플러스 과일이 길게 이어진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조금씩 돌려 줄 때라고 생각한다. 그 실천의 선두주자 역할을 너무도 열심히 하고 있는 탈렌트 김혜자씨, 오지영가 한미아씨, 평범하게 내 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 같은 위험지역에 자신의 모든 걸 노획하면서 한 생명이라고 더 구하고자 세계 속에 구호요청을 하고 아사직전의 생명에게 사랑의 샘물을 주고 있다. 박수를 보내고 마음을 보내고 더 나아가 따뜻한 호흡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그분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으면 한다. 나눔의 문화가 지구인들에게 평화의 약속이 되듯이 만가일에 넉넉함을 모든 이들과 함께 하는 날들이 되소서.

자유기고

기금모금 행사 후기



임경순 주부명예기자단

지난 10월27일 금요일 송우리에서 포천시 주부명예기자단 일일 기금 마련행사를 가졌다. 주부명예기자단 3년을 맞이해 갖는 행사로 작년말 어려운 이웃 돕기(김장담그기, 2006년5월 일일차집

시작되었다. 오전 10시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의 첫 방문을 시작으로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조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관한 주부명예기자단 임원단을 비롯해 관심 있는 지역인사를 120여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윤이음 운영위원장은 주부명예기자단이 포천신문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몫이 크다고 강조하고 이런 행사를 매년 개최해 앞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는 용기와 힘이 되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행사를 위해 청정봉어림 권경화 대표는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운주노제 이만푸드(주) 대표는 커피와 녹차를 제공해 행사에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이날 행사장에 파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사를 통해 자금마련도 하고 화합하고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하면서 약간의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를 위해 청정봉어림 권경화 대표는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운주노제 이만푸드(주) 대표는 커피와 녹차를 제공해 행사에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이날 행사장에 파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사를 통해 자금마련도 하고 화합하고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하면서 약간의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기자단 강요자 이사, 신형숙 총무를 필두로 임원진이 속속 도착했다. 떡, 과일 등 상차리기에 분주했고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풍선아트로 예쁘고 산뜻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행사의 취지는 주부명예기자단 일일기금 마련이다. 좋은 생각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사를 통해 자금마련도 하고 화합하고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하면서 약간의 설레는 마음으로

이날 행사의 취지는 주부명예기자단 일일기금 마련이다. 좋은 생각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사를 통해 자금마련도 하고 화합하고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하면서 약간의 설레는 마음으로

이날 행사의 취지는 주부명예기자단 일일기금 마련이다. 좋은 생각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사를 통해 자금마련도 하고 화합하고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하면서 약간의 설레는 마음으로

자유기고

즐거움이 함께 하는 나눔의 잔치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상기온 때문인지 날씨는 예감이 답고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포천동 바르게살기협의회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자선봉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새벽 6시 꽃밭 가꾸기에 받은 일금 50만 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큰 도움은 안될지 모르지만 작은 모일금도 봉사하는 일은 수익금으로 누구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시각의 연속이라는 꿈을 실현케 한다.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맛있는 추운 겨울에 다소 보탬이 되고 자원봉사하러 가시는 분들께도 짐을 덜어 줄 수 있어 서 또한 기쁨을 느낀다. 김미숙, 이정선, 윤미숙씨 등 함께 동참해주신 바르게살기 포천동협의회 위원님들께 감사

고 추워지니 더욱 격정이라고 한다. 생각한 끝에 새 것은 아니더라도 애타매장에 가서 세탁기를 구입해서 설치해 드려니 얼마나 고마워 하시는지 나 역시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한 분은 신읍동 남동방리 뒤편 산 중턱에 사시는 독거노인 한분이다. 역시 세탁기 한 대 설치해 드리고 또다른 어려운 이웃을 돕기 바라는 마음으로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친구에 일금 1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큰 도움은 안될지 모르지만 작은 모일금도 봉사하는 일은 수익금으로 누구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시각의 연속이라는 꿈을 실현케 한다.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맛있는 추운 겨울에 다소 보탬이 되고 자원봉사하러 가시는 분들께도 짐을 덜어 줄 수 있어 서 또한 기쁨을 느낀다. 김미숙, 이정선, 윤미숙씨 등 함께 동참해주신 바르게살기 포천동협의회 위원님들께 감사

詩

낙엽



동명탁 포천신문회원

빛깔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 가련한 모습 푸른 계절을 더듬으며 알곡은 운명을 원망할게다 꾀음을 잃어버린 너는 괴로운 가슴을 안고 심술 쿡은 바람을 원망할게다 파이란 꿈을 잃고 바람이 부는대로 사라져야만 하는 너의 운명 불타오르는 희망의 불길도 아득한 꿈결처럼 멀어간 단다.

